

‘중국 다예사 자격증’ 국내서 댄다

티월드 페스티벌 추진위, ‘티아카데미’ 개설



국내 최초로 중국 다예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티아카데미의 ‘중국 다예사 중급과정’의 수업 장면. 사진=박재원 기자

“중국의 차 변천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당대 이전에 차는 주로 식용(食用)과 약용(藥用)으로 쓰였고, 당송대를 거치며 음용(飲用)으로서의 차가 등장했으며, 명청시대에는 차의 가공기술이 급격히 발전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국 다예사(茶禮師)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강좌가 개설됐다. 티월드 페스티벌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정순)는 최근 ‘티아카데미’를 마련하고 그 첫 번째 강의로 중국다예유통협회와 함께 ‘중국 다예사 중급과정’을 개설했다.
1992년 설립된 중국다예유통협회(CTMA, China

차 개론·다례 표현 등 교육

Tea Marketing Association)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차의 연구·가공·판매·유통 등을 총괄하는 단체로,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직업 자격증인 다예사와 차를 감정하는 평차원 자격증을 발급하는 곳이다. 다예사는 중국의 고급 식당이나 다관(茶館)에서 차의 선택과 우리기를 담당하는 차전문가를 말한다.
2월 21일 열린 첫째 날 강의에는 30~50대의 차인 30여 명이 강의실을 채웠다. 최근 중국 다예에 대한 차인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신청자는 정원을

훌쩍 넘겼다. 참가자들은 강의기간인 3월 4일까지 12일 동안 매일 8시간씩 이론수업을 비롯해 차의 개론, 다례 기초지식, 다례 표현(表演), 다구감상, 심평(審評) 등을 배우게 된다.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 시험에 통과하면 ‘중국 다예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입학식에 참석한 중국다예유통협회 왕건 부회장은 환영사에서 “다예사는 차의 유통과 차문화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처음으로 다예사 강좌를 개최할 것을 계기로 양국간 차문화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의 통역을 맡은 박희준 동방차문화연구회장은 “중국에서 다예 종사자가 되기 위한 필수과정인 강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린 것은 뜻 깊은 일이다”고 말했다.

강좌의 성격이 전문적인 탓에 신청자 대부분은 차 생활 10~20년을 넘나드는 베테랑이 대부분이었다. 강의에 참석한 불광사 다도반 김혜영 실장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차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의 차 역사와 다예 등을 배워보고 싶어 강의를 신청하게 됐다”고 말한다. 수강료 70만원이 결코 적지 않은 부담이지만, 중국 현지에서 공부하러 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경제적, 시간적인 이유로 쉽지 않은 ‘주부 차인’들에게는 단시간에 집중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이다.

김정순 위원장은 “세계 각국의 차문화를 접함으로써 우리 차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티아카데미를 열게 됐다”며 “앞으로 매년 1~2차례씩 강좌를 마련할 예정이며 지방에서도 강좌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02)6000-2222, www.teanews.com

여수령 기자



원광디지털대학교 평생교육원인 서울 한설이화원은 차문화경영학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차를 배우려는 사람들의 사랑 받 역할을 하고 있다.

오프라인서 공부, 온라인서 실습

원광디지털대 평생교육원 ‘한설 이화원’ 개원



‘사이버대학’이나 ‘디지털대학’ 등 온라인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느끼는 허전함을 실습을 통해 배움을 느낄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직접 차를 우리고 마셔보도록 차의 진정한 의미를 배워 나가는 차 관련 학과 또한 예외는 아니다. 원광디지털대학교 차문화경영학과는 이러한 학생들의 갈증을 풀어주기 위해 전국 82개 다례원과 연계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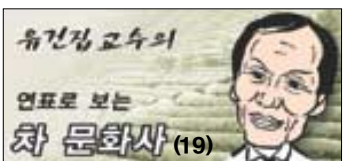
서울 광진구에 자리 잡은 원광디지털대학교 평생교육원 서울 한설이화원(원장 안혜숙) 역시 오프라인에서 학생들을 만나는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 원광대 평생교육원 전임교수이기도 한 안혜숙(47·사진)원장은 학생들이 직접 차를 대하며 온라인 교육에서 부족했던 점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3월 한설이화원의 문을 열었다. 현재 이곳에서는 원광디지털대학교 평생교육원의 교과과정인 전통차예절지도사 과정과 예절교육지도사 과정을 통해 다도 지도사를 배출하고 있다.

“교육원을 찾는 학생들의 연령대나 차를 배우게 된 계기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직접 만나 대화하고 부대끼며 차에 대해 공부함으로써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절에 다니며 차를 접했다는 안 원장은 성신여대에서 석사 과정을 마친 후 지역 문화센터에 다도 봉사활동을 다녔다. 그러던 중 원광디지털대학교에서 평생교육원을 운영해보라는 제안을 받고 교육원을 열게 됐다. 교육원이 마련되자 전국 각지에서 교육생들이 몰려들었다. 그동안 안 원장에게서 차를 배웠던 사람들이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평생교육원 교과과정 외에 한설이화원 자체적으로 다도예절 전문반과 전통의례 과정, 청소년 다도예절반, 어린이 서당 등도 운영하다보니 일주일 내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때문에 안 원장은 다음달 14일, 근처 50여명 규모의 아파트로 교육장을 옮길 계획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개원 1주년을 맞는 이날 오픈 기념식에서는 전통 돌상차림과 행다 시연 등의 문화행사도 펼칠 예정이다.

안 원장은 “한설이화원이 앞으로 다학과 관련한 정보를 얻고 사람들도 만날 수 있는 열린 교육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2)455-3507 여수령 기자



이규보 선다일여 기풍 조성, 무신정권에 다방 축소

매우 고급차였다. 그러나 무신들이 정권을 잡은 후에는 궁중의 다방도 축소되고 신하들에게 하사하던 차의 양이나 횟수도 격감한다.
중국에 남송대에도 차에 대한 열기가 식지 않아 육옥, 범상대 등의 차인이 있었으나 차의 값은 폭락한 반면 말값이 몇 배로 뛰어서 국외에 많은 손실을 보았다.
① 이인로(1152~1220)는 어려서 차를 즐겨 마셨고 다시도 남겼다.
② 김극기는 명종연간의 문인으로 초야에서 지내며 차를 즐겨 다시 여러 편을 남겼다. ‘용만잡흥’은 차에 대한 심오한 정신세계를 노래했다.

③ 3월에 왕(의종)이 현화사에서 행행하자 동서 양승원에서 각각 다정(茶亭)을 설치하고 어가를 맞이했다.
④ 왕이 귀부사에 행차할 때 달령다원(蠟嶺茶院)에서 쉬었다는 기록으로 볼 때 지방에도 다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⑤ 이규보는 의종 고종 연간의 문인으로 고려의 다사를 빛낸 다인이다. 다시문과 해박한 차정신을 남겼다.
⑥ 무신들이 정권을 잡은 후 차문화가 위축되고 왕의 차 하사가 줄었다.
⑦ 해심은 차를 사랑한 선시인(禪詩人)으로 ‘도백운암(劉白雲菴)’ 등의 다시를 남겼다.

⑧ 지눌은 중희선사의 선원정규에서 인용한 차에 관한 글이 <계초심학인문>에 전한다.
⑨ 정원간: 송대 시인으로 소식의 영향을 받아 다시시(茶詩詞)의 일격(一格)을 이루었다. ‘완계사(浣溪沙)’, ‘야좌(夜坐)’ 등에서 잘 표현되었다. 상장: ‘여지광보(茹芝廣譜)’와 ‘속다보(續茶譜)’를 저술했다.
⑩ 조여려: 송대 대학자로 응번의 <선화복원 공다록>을 보충하여 <북원별록(北苑別錄)>을 썼다.
⑪ 육유는 당대의 시인으로 많은 차시를 남겼다.
⑫ 범성대와 양만리, 주운은 송대의 시인으로 차에 관한 많은 시와 글을 남겼다.

시대별 연표		
한 국	중 국	일 본
2 이인로의 출생 ① ② 김극기의 활동 ② 1159 다정 설치 ③	④ 정원간(張元幹), 상장(桑奩)의 활동 ④ 1140 조여려(趙汝履) ⑩ ③ 육유의 활동 ⑩ ④ 범성대, 양만리, 주운 등이 활동 ⑫	가미구라 1159 평치(平治)의 난
1167 왕이 귀부사 행차 ④ 1168 이규보의 출생 ⑤ 1170 무신정권(정중부) ⑥	송 대 1173 세차(細茶) 수출 1177 말값이 오르고 차값이 내리다	헤이안 시대 1173 명정(應永) 시대 1175 정토종(淨土宗)
1178 다방원 6명 집, 전각국사 해심 출생 ⑦ 1186 무관이 내시관과 다방 겸직 ⑧ ⑧ 보조사의 활동 ⑧		

UFO와 하나님의 실체

몇 만년에서 몇천년전까지 지구를 찾아온 외계인(UFO)은 하나님으로 군림하며 인간을 지배했었다. 그 기록이 기독교 성경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기독교 성경(에스겔 1장)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날 때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 ▷ 폭풍과 큰 구름속에서 나타난다.
- ▷ 반짝반짝 빛나는 단색(색깔)이 같은 것이다.
- ▷ 날개가 달려 있다.
- ▷ 다리는 곧고 숨이치 발바닥이다.
- ▷ 비위가 달려 있다.
- ▷ 눈이 사방에 달려 있다(우리칭으로 추정)
- ▷ 이동할 때 번개같이 빠르다.
- ▷ 수정같은 공칭이 있다.(dome)같은 둥근 유리창으로 추정)
- ▷ 날을 때 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다(씨제트분사)
- ▷ 궁형위에 사람의 형상이 있다. 이상 내열한 모양이 성경에 나오는 정확한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정확하게 UFO이다. 만약 UFO가 아니라면 괴물의 형상에 틀림없다. 이 책을 읽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운명에 광명이 비친다.

※ 이 그림은 성경의 내용을 그린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다.

지식인(知識人)일수록 허황한 신(神·귀신) 이야기가 나오는 미신에 잘 빠진다.
부시맨이 플라빙을 하나님 선물로 알고 이를 神主모시듯 하는 것처럼 원시시대에 UFO(우주인)를 유일신으로 착각하고 맹신하여 신학(神學)을 연구했다면 그 신학은 궤변과 미과학 비합리 비도덕적 괴리로 뒤범벅이 될 것이다. 기독교 성경의 교리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오지의 미개한 원주민이 비행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사람들이는 하나님을 보았는가? 부처님이 화낸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는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무수히 많은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다. 이 책 한편으로서 기독교 성경 전체를 알 수 있다.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이 100% UFO라고 증명한 책
우리 모두는 21세기 르네상스를 주도할 역군임을 자각합시다.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니라 단 한번이라는 것을---!
※ 광고후원은 <범민족 깨닫기 운동 모임>에서 하는 것임.
※ 뜻이 있으면서 본은 회원에 (054-633-1138, 010-2465-1357) 동참하십시오.

정가 8,500원
도서출판 대명 TEL.042)623-0829 FAX.042)621-0110

권·心

(만의 위대한 힘)

만 성 지 음

권의 최초 해설서
권은 우주에 존재하는 부호중에 가장 많은 진리가 함축된 위대한 힘을 갖춘 종합적 부호이다. 이 책을 읽으면 권의 위대한 신비를 알 수 있다.
도서출판 대명 정가 7,500원

범민족 깨닫기 운동 모임

민족의 바른 정서와 바른 종교와 바른 의식의 전환운동으로 의식이 깨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 민족의 깨닫기 운동을 주도하는 모임
회장 김 도 기
회·원·모·집
TEL. 054)633-1138, 010-2465-1357